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고등학생’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스노보드 올림픽 첫 2개 메달
이나현은 빙속 1000m 9위
컬링 믹스더블 9위 마무리

성복고에 재학 중인 2008년생 유승은이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얻어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넷(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989년생인 스노보드의맏형 김상겸(하이원)이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유승은이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한국스키·스노보드는 역대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따냈다.

유승은은 1차 시기에서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백사이드 트리플 투 1440’으로 87.75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서 프린트사이드로 네 바퀴를 돌며 83.25점을 기록했다.

3차 시기에서 작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20.75점을 기록했으나 높은 점수 2개를 합산하는 규정상 무리 없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9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차지한 유승은. 연합뉴스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예선 차세대 에이스 이나현(한국체대)이 1분15초76의 기록으로 9위에 올랐다.

이나현은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유선희가 거둔 한국 선수 올림픽 여자 1000m 최고 순위(11위)를 34년 만에 경신했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강릉시

홍명보호, 3월 A매치 첫 상대 코트디부아르 내달 28일 경기… 4월 1일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유럽 원정으로 치러질 두 차례의 평가전 상대를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3월 28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인근에서 코트디부아르와 맞붙은 뒤 장소를 옮겨 4월 1일 오전 3시 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홈팀 오스트리아와 맞붙는다.

첫 상대인 코트디부아르(FIFA 랭킹 37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F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 지은 팀이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독일, 퀴라소, 에콰도르와 함께 E조에 속해 있다.

최근 치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8강에서 이집트에 패해 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별리그 3차전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겨냥한 ‘모의고사’ 성격이 짙다.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탄력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아프리카 팀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역대로 코트디부아르와 한 번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2010년 3월 런던 평가전 당시 이동국과 과태우의 연속 골로 2-0 완승한 바 있으며, 16년 만에 다시 영국에서 재회하게 됐다.

연합뉴스

제주대 검도부 접전 끝에 국립대리그 정상

단체전 목포대 3대2 제압
일반부는 4강 진출 실패

제주대 검도부가 2026년 전국대학 검도 동계리그전에서 국립대리그 남자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에 따르면 전국 14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제주대 검도부는 접전 끝에 목포대를 3-2로 꺾고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대는 앞서 열린 일반대학부



2026년 전국대학검도 동계리그전 국립대리그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제주대 검도부.

LA 올림픽 야구 출전 방식 확정

프리미어12에 사활 걸어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야구 종목 본선 출전 방식이 확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2028년 LA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 본선 진출팀들을 정하는 방식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LA 올림픽 야구에서는 자동 출전하는 개최국 미국을 비롯해 6개 나라가 경쟁한다.

WBSC는 먼저 올해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주대륙 상위 2개 나라에 본선 진출권을 배정했다.

이어 2027년 11월에 열리는 WBSC 주관 프리미어12 상위팀에 2장을 준다.

이때는 아시아대륙 상위 1개 나

조별리그에서 2승4패로 5위로 예선을 통과한 뒤 경운대A팀을 5-1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지만 성균대에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제주대 검도부는 2022년 준우승, 2023년 3위, 2024년 준우승, 2025년 3위, 그리고 이번 우승까지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성과를 내며 제주 검도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제주대 검도부는 또 지난해 8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54회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축 임

서귀포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김옥화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박종철 외 임직원 일동

수 축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김상현
(안덕농협 과장보)

농업분야 재해대응사업 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 일동

선 축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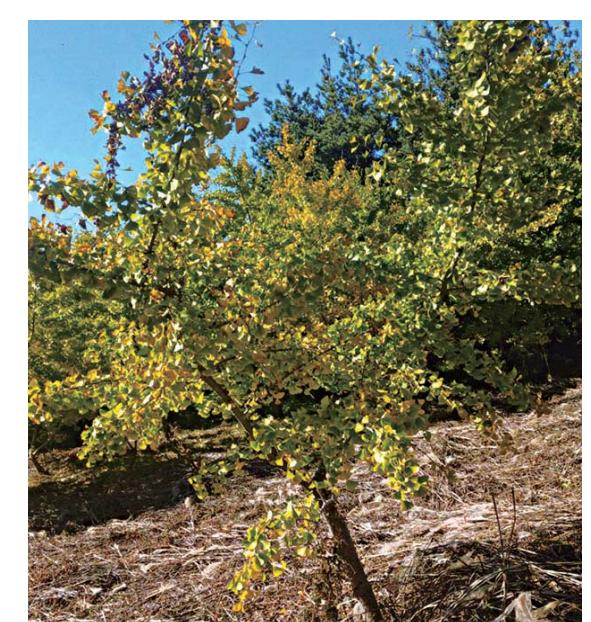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

김양택
(인방종친회 고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인방종친회
회장 김수형 외 종친 일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